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5.11.27.(목) 총 2매 (본문 2)	
자료 제공	•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 최일선 실장(051-797-4727)/이슬기 전문연구원(051-797-4768)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제영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해양레저관광 산·학·연·정 전문가 한자리에... 관련 규제개선·연구개발·생태계 구축 해법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025 해양 최고경영자(CEO) 초청 세미나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11월 2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해양수산부 및 해양레저관광 분야 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해양레저관광 CEO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레저 환경 속에서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변화 양상, 규제·제도적 현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KMI가 국내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산업-정책-현장 연계 CEO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업계 주요 CEO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주제발표에서 박창환 동서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시장의 구조변화’를 주제로 글로벌 관광 수요의 다변화, 레저 소비 트렌드의 고급화 등 최근 산업이 맞이한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 해양레저관광 산업이 확보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윤성순 KMI 해양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CEO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완화 및 제도 정비 △융합·확장 기반의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또한, 마리나·요트, 서핑·수중레저, 크루즈, 해양장비·제조업 등 각 분야에서는

△경직된 현행 법·제도 △중복 규제 △이해관계 조정 부재 △불합리한 안전·검사 기준 등이 산업 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는 통합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속적 협의 플랫폼, 기초 데이터 구축 및 R&D 강화, 외국인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적극적 지원도 요구되었다.

특히 정책금융 확대, 인프라 확충, 안전·보험·인력 기준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해양레저관광은 이미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도 연안관광 수요 증가와 시장 확대에 힘입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는 산업 현장에서 겪는 규제·인프라·안전관리 등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KMI는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이슬기 전문연구원(051-797-4768) <sglee84@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